



한방병원 간호사의 한방간호 교육요구도와 지식수준

오남경¹ · 심정은²

¹광화문자생한방병원, 수간호사, ²경민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Educational Needs and Knowledge Level of Traditional Korean Nursing among Nurses in Korean Medicine Hospitals

Oh, Nam Kyung¹ · Sim, Jeongeun²

¹Head Nurse, Gwangwamun Jaseng Hospital of Korean Medicine, Seoul, Republic of Korea; ²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yungmin University, Uijeongbu, Republic of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ducational needs and knowledge level of traditional Korean nursing among nurses in Korean medicine hospitals. **Methods:** A survey design was used. A total of 180 nurses working for more than six months at 10 Korean medicine participated in this study. Data were collected in September of 2019. All data were analyzed by t-test, ANOVA, Scheffé, and paired t-test using SPSS Statistics 25.0 program. **Results:** The six sub-areas of educational needs for traditional Korean nursing were knowledge of treatments, direct nursing care, types of acupuncture, manipulative therapy, diagnosis, and herbal medicine in order. Average score of the educational needs for nurses in Korean medicine hospitals was 3.77 points out of 5 points. All six sub-areas of the knowledge level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verage score of knowledge level about Korean medicine among nurses was 3.03 out of 5. **Conclusion:**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a high level of knowledge is required or Korean medicine education. Knowledge of Korean medicine should be improved through education on the types of acupuncture, manipulative therapy, diagnosis, and treatment with relatively low score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preparing an educational system to improve the knowledge level of nurses in Korean medicine hospitals.

Key Words: Korean Traditional Medicine, Educational needs, Knowledge, Nurses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만성 퇴행성 질환이 증가하여 질병의 치료보다는 조절 유지가 필요한 상황으로 전환되면서 의료소비자의 한방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1,2]. 1987년 한방 의료에 대한 의료보험이 적용되면서부터 그 이용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따른

한방병원과 병상 수의 급증은 한방 간호 인력의 양적 질적 확보를 필요로 하고 있다[2]. 한방병원과 병상 수가 급증함에 따라 한방간호사의 수도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어, 2010년 1,380명, 2016년 1,457명으로 추산되었으며 2018년 4분기에는 1,861명으로 추산되고 있다[3]. 한방병원에서 근무하는 한방간호사는 “한방을 전문으로 하는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대상자들에게 간호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근거 중심의 한방간호를 제공하는 간호사”로 정의한다

주요어: 한의학, 교육요구도, 지식, 간호사

IRB 승인기관 및 번호: 성균관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RB No: SKKU 2019-09-004]

Corresponding author: Jeongeun Sim (<https://orcid.org/0000-0003-3155-5562>)

Department of Nursing, Kyungmin University, 545, Seobu-ro, Uijeongbu 11618, Republic of Korea

Tel: +82-31-828-7475 Fax: +82-31-828-7469 E-mail: Jeongeun@kyungmin.ac.kr

Received: 6 October 2022 Revised: 17 November 2022 Accepted: 18 November 2022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Derivs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d/4.0/>) If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and retained without any modification or reproduction, it can be used and re-distributed in any format and medium.

[4]. 그러나 선행연구에 따르면, 현장에서 근무하는 한방간호사의 88.3%는 한방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었다고 보고하고 있어[4], 한의학에 대한 학문적 밑바탕이 미비한 채로 양방을 학습한 간호사들이 서양의학 중심의 간호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5]. 또한 한방간호사들은 체계적인 교과과정을 통한 교육보다는 간호사가 근무하는 병동의 실무에 중점을 둔 상황에 따른 학습을 통하여 지식을 습득하고 있다고 하였다[5]. 이들은 한방간호지식이 부족한 상태로 한방간호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가 92.0%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한약처방에 대해 잘 모를 때, 한문이 많아 해석이 안 될 때, 한방 의학용어를 이해할 수 없을 때, 한의사나 대상자와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6,7]. 한방간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한방 의료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시행하는 현장에서 한방간호사의 역할비중은 커지고 있는 반면, 양질의 간호를 한방병원의 특수성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한의학과 관련된 교육경험이 있는 간호사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라 하겠다[8].

2022년 기준 국내에 한의학 교육기관은 12개가 있고 한방병원 473개소가 있다[9]. 현재, 한방간호사의 교육은 간호대학에서 제공되는 교육에 의존하고 있으나, 대학의 간호교육에서 한방관련 교과는 4년제 대학교 20.5%, 3년제 대학교 29.9%만이 운영되고 [17] 있으며 한방관련 교과내용도 대학마다 이수학점이 동일하지 않고 교육내용에서도 한방간호의 내용과 범위가 대학마다 차이가 있어 한방간호와 관련된 전문지식을 위한 교육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6,7]. 이에 임상에서의 한방간호사들을 위한 교육은 한방병원에서 자체적으로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방간호 실무교육에 의존하고 있다[1]. 현재 일부 기관이나 대학 연구소 차원에서 개설되어 있는 한방전문간호사 수련과정은 병원 차원의 시간적 경제적 지원이 부족하여 참여율은 저조한 편이고 [10,11], 한방간호와 관련된 간호사 보수교육은 년 1회 집체교육만 실시되고 있어 한방간호 실무지식을 발전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다[12]. 이로 인해 현재 대부분의 한방병원에서는 서양간호 이론과 실기 교육을 받은 간호사로 충당되어 한방간호사로서의 역할 수행에 대한 충분한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5,8]. 결국 한방관련 전문 지식과 기술 부족은 한방간호사의 스트레스로 나타나고 있으며[10], 간호업무에 역할 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1,13]. 따라서 급등하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수준 높은 한방간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방간호 교육프로그램 및 지침서 개발이 절실하다 하겠다[5]. 이를 위해서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전 임상 실무와 현 상황이 반영된 한방간호사들의 지식수준을 확인하고 실질적인 교육요구도 파악이 선행되어야[14] 이들을 위한 단계별 한방전문 간호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한방간호 지식요구도[7], 한방간호지식 정도[11], 한방간호 직무교육 요구도[1]를 측정하는 연구가 있었다. 직무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한방간호 직무교육 요구도를 측정하는 Jung과 Kim[1] 연구에서는 문헌고찰과 한방 간호사 2인을 포함한 5인의 인터뷰를 통해 조사하여 현장에서 근무 중인 대다수의 한방 간호사들의 실제적인 요구도를 고려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었다. 또한 한방간호 지식요구도를 측정하는 Kim[7]의 연구는 2002년에 조사된 연구로 최근 임상 현장의 변화된 요구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한방병원 간호사의 실제적인 한방간호 교육요구도를 알아보고 이들의 한방간호 지식수준을 확인하여 최근 임상 현장의 교육 요구도를 반영한 한방간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한방병원 간호사의 한방간호 교육요구도와 지식수준의 차이를 파악하는데 있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한방병원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과 교육 관련 특성을 확인한다.
- 2) 한방병원 간호사의 한방간호 교육요구도와 지식수준을 확인한다.
- 3) 일반적 특성 및 교육 관련 특성에 따른 한방간호 교육요구도와 지식수준을 확인한다.
- 4) 한방간호 교육요구도와 지식수준에 따른 차이를 확인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한방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방간호 교육요구도와 지식수준 정도를 파악하고 교육요구도와 지식수준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 대상자는 전국 사도에 있는 한방 의료기관 중 15개(한방병원 10개, 대학부속 한방병원 5개) 기관에서 근무한 지 6개월 이상의 간호사다.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은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사람 중 자가 보고식 설문지에 적절한 응답이 가능하고 6개월 이상 한방병원에 근무한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 수 산출은 Cohen의 표본 추출 공식에 따라 G-power 3.1.9.7 (Heinrich-Heine-Universität Düsseldorf, Düsseldorf, Germany)을 이용하여 중간 적정의 효과크기 0.25, 유의수준 0.05, 검정력을 0.80

을 기준으로 표본 수는 180명으로 산출되었다. 설문지는 탈락율(5%)을 고려하여 189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186부(98.5%)를 회수하였다. 이 중 답변이 불충분한 6부를 제외한 180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3. 연구 도구

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 결혼 여부, 총 임상 경력, 양·한방병원 경력, 최종학력, 직위, 근무유형, 병원 유형, 병원 소재지로 총 1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 한방간호 교육경험

학부 과정에서의 한방간호 교육경험 유무, 한방간호 실습경험 유무, 한방 간호교육의 필요성 여부, 실무 중의 한방 간호교육 경험의 유무, 한방 간호교육 수강 기간, 한방간호 교육 수강 형태, 한방간호 교육 미수강 이유, 교육정보 인지 경로, 업무 중 한방간호 지식 부족에 어려움을 느꼈던 경우, 선호하는 교육과정, 선호하는 교육방식, 한방간호 교육시간, 한방간호사 전문교육과정 이수 유무 총 1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 한방간호 교육요구도와 지식수준

한방간호 교육요구도는 선행연구 고찰과 사전 조사를 통해 Kim[7]이 개발한 한방간호 지식요구도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 한방간호 지식요구도 측정도구는 간호학 교수 2인, 수간호사 2인, 간호사 2인, 한의사 2인의 자문을 받고 수정한 뒤, 간호사 1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그 내용을 수정 보완한 도구이다 [7]. 이 도구는 총 45문항 6가지 영역(직접간호지식 4문항, 한약지식 7문항, 요법지식 12문항, 침의 종류지식 7문항, 수기요법지식 4문항, 진단·치료지식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알 필요 없다' 최저 1점부터 '반드시 알아야 한다' 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교육요구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원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98$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0.96$ 으로 나타났다. 한방간호 지식수준은 Kim[7]에 의해 개발된 한방간호 지식요구도 측정 도구에 포함된 동일한 항목을 사용하였다. 총 45문항 6가지 영역(직접간호지식 4문항, 한약지식 7문항, 요법지식 12문항, 침의 종류지식 7문항, 수기요법지식 4문항, 진단·치료지식 11문항)으로 구성된 항목으로 측정하였으며,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모른다' 최저 1점에서 '매우 잘 알고 있다' 5점까지 점수가 높을수록 대상자가 지각한 지식수준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원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98$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0.96$ 로 나타났다.

4. 자료수집 기간 및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19년 9월 10일부터 9월 29일까지였다. 설문조사에 앞서 각 한방의료기관의 간호부서장에게 유선으로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고 자료 수집에 대한 허락과 협조를 받아서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과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구조화된 자가 보고식 설문으로 진행하였다. 설문지의 배부는 연구자가 직접 기관을 방문하거나 회신시의 편의를 위해 반송 봉투를 동봉하였으며 등기우편으로 설문지와 소정의 선물과 함께 배부하였다. 설문지의 소요 시간은 약 15~20분 정도였으며, 회신은 연구자가 기관을 방문하여 직접 회수하거나 등기우편으로 회신 받았다.

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성균관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IRB (SKKU 2019-09-004)의 승인받은 후 시행되었다. 본 설문지에는 연구의 목적과 자료의 익명성 및 비밀보장, 연구 철회 등의 내용을 기술하였으며 서면 동의서를 읽고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를 한 경우에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본 설문지는 코드화된 연구번호로 처리되어 비밀보장이 이루어지게 하였고 연구책임자가 연구 종료 후 이중 잠금장치로 되어 있는 사무용 보관함에 설문지를 안전하게 3년간 보관 후 폐기하였다.

6.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한방병원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과 교육 관련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한방병원 간호사의 한방간호 교육요구도와 지식수준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한방간호사의 한방간호 교육요구도와 지식수준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대응표본 t검정(Paired t-test)을 하였다. 또한 일반적 특성과 교육특성에 따른 한방간호 교육요구도와 지식수준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ANOVA) 및 Scheffé검정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한방간호 교육요구도와 지식수준 차이

대상자의 연령은 평균 35세로 30대가 89명(49.4%)으로 가장 많았으며, 결혼 상태는 미혼자가 98명(54.4%)으로 많았다. 총 임상 경력은 10~20년 미만인 64명(38.9%)으로 가장 많았고 한방병원의 경력은 10년 이상이 44명(24.5%)으로 많았다. 학력은 4년제가 94명

(52.2%)으로 많았고, 직위는 일반간호사가 118명(65.6%)이었다(Table 1). 연령에 따른 한방간호 교육요구도는 40대 이상(3.95±0.44점)과 30대(3.80±0.46점)가 20대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연령별 지식수준은 40대 이상이 3.26±0.69점으로 가장 높고, 30대가 3.02±0.58점, 20대가 2.87점±0.55점으로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8$). 직위에 따른 지식수준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p<0.001$), 과장 이상 3.66±0.39점, 수간호사 3.33±0.60점, 책임간호사 3.08±0.46점, 일반간호사가 2.93±0.63점으로 직급이 높을수록 지식수준도 높았다. 결혼 상태는 한방간호 교육요구도와 지식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력에 따른 지식수준은 4년제가 3.02±0.64점, 전문대 2.92점±0.52점, 석사 3.45점±0.61점으로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3$). 한방병원 근무경력에 따른 지식수준은 10년 이상인 경우가 3.27±0.61점으로 가장 높고, 5~10년 미만인 3.03±0.54점, 5년 미만인 2.92±0.62점 순으로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그 외 근무 지역별 차이도 조사하였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1).

2. 한방간호사의 한방간호 교육요구도와 지식수준의 차이

한방간호 교육요구도의 평균은 3.77점이었다. 영역별 결과는 요법지식이 4.11±0.59점으로 가장 높았고, 한약지식 3.95±0.56점, 직접간호지식 3.76±0.62점, 침의 종류지식 3.70±0.62점, 수기요법지식 3.50±0.72점, 진단·치료지식 3.41±0.69점 순으로 나타났다. 대상자가 지각한 지식수준정도는 평균 3.03점이었다. 지각된 지식의 하부 영역을 살펴보면 요법지식이 3.38±0.75점으로 가장 높고, 한약지식 3.22±0.70점, 직접간호지식 3.14±0.73점, 침의 종류 지식 2.95±0.80점, 수기요법지식 2.72±0.75점, 진단·치료지식 2.67±0.68점 순이었다(Table 2). 교육요구도와 지식수준의 6가지 하부영역(직접간호 지식, 한약지식, 요법지식, 침의 종류 지식, 수기요법지식, 진단·치료지식)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3. 교육 관련 특성에 따른 한방간호 교육요구도와 지식수준의 차이

학부 과정에서의 한방간호 교육 경험을 묻는 문항에서 ‘없음’이 113명(62.8%)이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임상실습 경험에서도 ‘없음’이 151명(83.9%)으로 가장 많았다. 실무 중 한방간호 교육의 필요

Table 1. Differences in Educational Needs and Knowledge Level of Traditional Korean Nursing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80)

Characteristic	n (%)	Education needs			Knowledge level			
		M±SD	t/F(p)	Scheffé	M±SD	t/F(p)	Scheffé	
Age (yr)	20~<30 ^a	49 (27.2)	3.54±.56a			2.87±.55		
	30~<40 ^b	89 (49.4)	3.80±.46b	8.82(.000)	c,b>a	3.02±.58	4.94(.008)	-
	≥40 ^c	42 (23.4)	3.95±.44c			3.26±.69		
Married status	Single	98 (54.4)	3.67±.52	-2.68(.008)	-	2.96±.57	-1.76(.079)	-
	Married	82 (45.6)	3.87±.47			3.12±.64		
Work experience (yr)	<5	37 (21.1)	3.62±.55			2.93±.71		
	5~<10	52 (30.0)	3.76±.49	1.58(.196)	-	3.00±.54	1.46(.227)	-
	10~<20	64 (38.9)	3.83±.49			3.05±.57		
	≥20	18 (10.0)	3.85±.46			3.28±.72		
Work experience in Korean medicine hospital (yr)	<5 ^a	92 (51.1)	3.72±.52			2.92±.62a		
	5~10 ^b	44 (24.4)	3.78±.52	.99(.374)	-	3.03±.54b	5.28(.001)	c>b,a
	≥10 ^c	44 (24.5)	3.85±.45			3.27±.61b		
Education level	College ^a	66 (36.7)	3.76±.50			2.92±.52a		
	University ^b	94 (52.2)	3.74±.51	1.14(.323)	-	3.02±.64b	6.07(.003)	c>a,b
	Master ^c	20 (11.1)	3.92±.48			3.45±.61c		
Job position	Staff nurse	118 (65.6)	3.72±.51			2.93±.63		
	Charge nurse	35 (19.4)	3.84±.51	.87(.460)	-	3.08±.46	5.80(.001)	-
	Head nurse	19 (10.6)	3.82±.48			3.33±.60		
	≥Manager	8 (4.4)	3.91±.33			3.66±.39		
Hospital location	Seoul, Gyeonggi province	90 (50.0)	3.69±.51			3.00±.61		
	Metropolitan city	57 (31.6)	3.88±.35	2.98(.053)	-	3.15±.65	2.57(.064)	-
	Other	33 (18.4)	3.80±.54			2.94±.59		

M=Mean; SD=Standard deviation; yr=year; a, b, c by Scheffé test

Table 2. Differences in Educational Needs and Knowledge Level in Traditional Korean Nursing

(N=180)

Characteristics	Educational needs		Knowledge levels	
	M±SD		t	p
	3.77±.50	3.03±.61		
Direct nursing care	3.76±.62	3.14±.73	11.52	.001
Herbal medicine	3.95±.56	3.22±.70	13.38	.001
Treatments	4.11±.59	3.38±.75	11.58	.001
Types of acupuncture	3.70±.62	2.95±.80	11.11	.001
Manipulative therapy	3.50±.72	2.72±.75	12.46	.001
Diagnosis	3.41±.69	2.67±.68	13.59	.001

M=Mean; SD=Standard deviation

성 항목에서는 135명(77.1%)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실무 중에서 한방간호 교육 경험을 묻는 항목에서는 ‘없음’을 118명(65.6%)이 응답하였다. 한방간호 교육 수강 시 선호하는 과정은 보수교육 64명(35.6%), 한방간호사 전문교육과정 55명(30.6%), 병원 내 직무교육 39명(21.7%), 세미나 또는 학회 18명(10%) 순으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교육방식으로는 강의식 86명(47.8%), 이러닝 50명(27.8%),

실습식 30명(27.8%), 워크샵 형태 11명(6.1%) 순으로 조사되었다. 한방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험 묻는 항목에서는 이수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군이 160명(90%)으로 나타났다. 학부과정에서의 한방교육경험을 묻는 항목에서는 1과목 교육 경험이 있는 군(3.82±0.47점)이 2과목 이상의 교육 경험이 있는 군(3.81±0.51점)보다 교육요구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학부에서 한방실습 경험이 있

Table 3. Differences in Educational Needs and Knowledge Level of Traditional Korean Nursing according to Education Related Characteristics (N=180)

Characteristics	n (%)	Educational needs		Knowledge level	
		M±SD	t/F(p)	M±SD	t/F(p)
Experience of completing traditional Korean nursing education in university	1 participant	55 (30.6)	3.82±.47	2.99±.60	
	≥2 participant	12 (6.7)	3.81±.51	3.33±.51	1.59 (.206)
	No	113 (62.8)	3.74±.52	3.03±.62	
Experience of completing traditional Korean nursing practice in university	Yes	29 (16.1)	3.69±.50	3.13±.58	.95 (.341)
	No	151 (83.9)	3.78±.50	3.02±.62	
The need for traditional Korean nursing education in hospitals	Yes	135 (77.1)	3.81±.45	3.09±.56	1.76 (.083)
	No	45 (22.9)	3.63±.62	2.88±.72	
Traditional Korean nursing education experience in hospital	Yes	62 (34.4)	3.85±.43	3.15±.53	1.81 (.071)
	No	118 (65.6)	3.72±.53	2.97±.64	
Preferred courses for traditional Korean nursing education	Graduate course	4 (2.2)	3.93±.27	2.76±1.18	
	Continuing education	64 (35.6)	3.68±.45	2.98±.59	
	professional course	55 (30.6)	3.85±.53	3.11±.63	1.12 (.348)
	Seminar, conference	18 (10.0)	3.88±.47	3.22±.60	
	Hospital education	39 (21.7)	3.71±.56	2.95±.55	
Education methods for traditional Korean nursing	Lecture	86 (47.8)	3.79±.50	3.08±.60	
	Training	30 (16.7)	3.72±.49	3.01±.56	
	Workshop	11 (6.1)	3.93±.60	3.43±.52	2.39 (.053)
	E-learning	50 (27.8)	3.71±.48	2.87±.65	
	Other	3 (1.7)	3.79±.67	3.26±.39	
Experience with the nursing curriculum of traditional Korean nursing	Yes	20 (10.0)	3.98±.49	3.28±.55	1.91 (.058)
	No	160 (90.0)	3.74±.50	3.00±.61	

M=Mean; SD=Standard deviation

는 군(3.78±0.50점)이 한방실습 경험이 없는 군(3.69±0.50점)보다 교육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실무 중 한방교육경험이 있는 군(3.85±0.43점)이 한방교육경험이 없는 군(3.72±0.53점)보다 교육요구도가 높았으며 한방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험이 있는 군(3.98±0.49점)이 경험이 없는 군(3.74±0.50점)보다 교육요구도가 높았다. 또한 지각한 지식수준정도를 살펴보면 학부과정에서 2과목 이상의 한방교육을 수강한 군(3.33±0.51점)이 가장 높았고 학부과정에서 실습을 경험한 군(3.13±0.58점)이 실습을 경험하지 않은 군(3.02±0.62점)보다 높았다. 또한, 한방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험이 있는 군(3.28±0.55점)이 이수 경험이 없는 군(3.00±0.61점)보다 지각한 지식수준 정도가 높았다. 그 외에 학부과정에서의 한방교육 교육경험, 실습경험, 실무 중 교육필요성, 한방간호 교육필요성, 한방간호 선호과정, 한방간호 선호방식의 항목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3).

논 의

본 연구는 한방병원에서 근무 중인 한방간호사의 한방간호 교육요구도와 지식수준의 차이를 확인하여 한방간호사의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한방간호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한방간호사는 연령과 결혼 상태에 따라 교육요구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30대 이상, 기혼자일수록 교육요구도가 높았다. 한방간호사의 지식수준은 연령, 한방경력, 학력, 직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40대 이상이 가장 높았고 근무경력이 높을수록, 석사학력이 4년제와 전문대 학력보다 지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 결과에서도 근무경력이 많은 간호사, 외래 근무의 간호사, 수간호사 이상, 석사 이상의 고학력, 고연령 및 기혼인 간호사가 교육요구도와 지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내[7,15,20]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해 주었다. 연구대상자 중 한방병원 근무 경력이 5년 미만인 경우가 절반이상(51.1%)으로 나타났다. 간호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간호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위해서는 학습대상자의 교육요구도에 맞춘 교육프로그램이 개발·운영되어야 한다는 보고가 있으므로[18] 한방임상경력이 낮은 간호사에게도 교육요구도를 근거로 하여 임상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방간호 교육요구도는 5점 만점에 전체 평균 3.77점으로, 한방간호지식 요구도를 측정한 Kim[7]의 연구에서는 3.99점, 한방간호교육 요구도를 측정한 Jung[1]의 연구에서는 4.06점으로 측정되어 선행연구와 유사하게 높은 수준으로 측정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간호사는 간호업무에 있어서 전문화가 필요하거나

간호업무 수행 시 어려움을 느낄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교육요구도가 증가한다고 하였다[19]. 특히 현 대학교육 과정에서 한방간호는 필수 이수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한방간호와 관련된 교육적 배경이 전무하거나 미약한 상태로 근무하게 되고[17], 임상에서 나날이 높아진 한방간호 수요에 부응하는데 역부족인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라 생각된다. 한방간호 교육요구도의 영역별 순위를 살펴보았는데 1순위가 요법지식이었고, 다음은 한약지식, 직접간호지식, 침의 종류지식, 수기요법지식, 진단·치료지식의 순으로 나타났다. 요법지식은 ‘침치료 후의 주의 사항에 관하여’, ‘침의 부작용, 처치 법에 관하여’ 순으로 교육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실무에서 간호사들이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빈도가 높은 처치이내[7,16] 한의학과 관련된 지식과 기술부족으로, 실무에서 업무수행 중 느끼는 어려움을 추측할 수 있었으며 한방 간호사들의 깊이 있는 교육에 대한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 하겠다. 한방병원에서 간호사는 주로 침 치료 전후의 간호교육 및 주로 발침을 시행하고 있고 침치료의 간호와 환자 교육시와 침훈 증상이 일어났을 때의 응급상황의 대처까지 감안 해 볼 때 누구보다 전문적인 한방지식과 함께 대처능력을 갖춘 전문가가 되어야 하지만, 스스로가 한방지식에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어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결과라 생각된다. 선행연구[7,11]에서 한방병원 근무 간호사들이 업무 중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는 질병의 분류 및 용어, 한약의 효능과 작용기전 침·뜸·부항 등의 차이와 적용상의 기준, 증상의 변화와 예후 등이 있다고 하였고 이 중 침·뜸·부항 등의 한방 치료 방법은 양방에는 없는 한방간호만의 독특하고 특수한 영역의 간호라고 하였다. Kim[7]의 연구에서도 한방간호지식에 관해서는 먼저 침술을 시행하는 경혈점과 한방 약물의 용도에 관한 지식수준의 경우 모른다는 응답이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한방간호사에게는 그들이 원하는 한방간호에 대한 교육내용을 세분화하여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여 한방간호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 할 수 있는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수적이다 하겠다. 또한 전문적인 한방간호지식 습득을 위해서는 병원차원의 간호인력,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교육을 위한 수당 및 공가지원이 필요하다는 보고가 있으므로[21] 병원차원의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한방간호사의 한방간호 지식수준은 5점 만점에 평균 3.03점으로 나타났다. 한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Kim의 연구[7]에서 평균 결과 3.99점보다 낮았고 한방병원에서 근무하는 병동간호사 대상으로 한 Park 등의 연구[11]에서의 2.99점보다 높은 결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한방간호사의 지식수준 중에서 하위영역별 가장 낮은 순위는 진단·치료지식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수기요법지식, 침의 종류지식, 직접간호지식 순으로 나타났다. 진단치료 지식은 한방간호 업무에서 자주 진단되고 치료되고 있는 처치로 침, 뜸, 부항에 대한 지식을 의미한다[7,11]. 즉, 한방간호사들은 실무에서 자주 진단되는 침, 뜸, 부항에 대한 간호는 대상자에게 그 효능과 주의사항 및 한약재의 효능과 종류, 주의사항 등을 간호사 스스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에 대한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개발된 한방간호사를 위한 한방간호 직무교육 프로그램은 구성 항목으로 한방간호의 역사(1개 항목), 인체의 한방적 이해(1개 항목), 진찰과 변증(3개 항목), 한방 치료법(4개 항목), 양생과 조리(1개 항목), 한방과 간호(2개 항목), 약재의 관리(1개 항목), 외래환자 관리(5개 항목), 병실에서의 한방 기초간호(2개 항목), 응급 한방간호(1개 항목)의 총 21개의 항목을 제안한 바 있다[1]. 그러나 이 연구는 기존 문헌을 토대로 교육요구도를 조사하여 직무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였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한방간호사들의 실제적인 요구와 상황이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실무현장의 간호사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교육내용에 그 현장의 요구와 상황이 반영되어야 함으로[14] 이를 위해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들의 지식수준을 고려한 단계별 교육 내용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방간호사의 교육관련 특성에 따른 한방간호 교육요구도와 지식수준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학부과정에서 한방교육 수강경험과 실습경험 따른 한방간호 교육 요구도와 지식수준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실무 중 한방간호 교육 경험을 묻는 항목에 65.6%(118명)가 '없음'으로 응답하였고, 실무 중 한방간호 교육의 필요성 항목에 77.1%(135명)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다수의 한방간호사들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으나 실제 교육은 받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학부에서 한방 실습경험이 있는 경우, 한방 실습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교육요구도나 지각한 지식수준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추후 교육과정 개설시 이론 뿐만 아니라 실습의 교육 방법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하겠다. 간호사의 한방병동 적응과정을 다룬 연구에 따르면 한방부서로의 발령은 생소한 근무현장으로 보내져 낯선 한방 간호업무로 혼란을 느꼈다고 보고하고 있다[8]. 보건교사의 경우, 이론 교육외에 실습을 겸비하여 현장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직 과정을 구성하고 있으나[22] 그에 비해 한방간호는 현장과 관련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한방관련 교과내용 구성은 이론과 실무를 융합한 교과과정의 개설이 필요하며, 실무에서의 전문적인 교육요구도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한방 전문간호사 과정의 개설을 제언해본다.

한편, 한방간호를 배울 수 있는 경로로 대다수가 보수교육 과정의 강의 형태로 수강을 원한다고 응답하였는데 현재 오프라인으로만 운영하는 보수교육을 수도권 지역에서만이 아닌, 지방지역도 순회하여 확대하게 되면 더 많은 간호사들이 참여 할 것이라 예상된다. 현재, 한방간호학회 과정은 찾아 볼 수 없으며 한방간호 교육이나 세미나는 10시간미만 혹은 없는 경우가 50.0%로[6] 향후 한방간호학회나 세미나 과정이 주기적 또는 분기별로 프로그램이 개설된다면 한방간호 교육에 대한 관심도 확대와 역량을 쌓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한방간호사의 교육요구도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대상자의 간호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변화를 반영한 교육프로그램을 구성, 제공한다면 간호사의 지식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 예상된다. 이러한 노력은 나날이 높아가는 간호대상자들의 간호수요에 부응하고 나아가 질적으로 수준 높은 한방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본 연구결과, 한방간호 교육요구도는 5점 만점에 전체 평균 3.77점이었고 지각된 지식수준은 5점 만점에 평균 3.03점으로 나타나 한방간호 교육요구도가 지각된 지식수준보다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한방병원 간호사들의 한방간호에 대한 지식수준이 교육요구도보다 낮아, 모든 분야의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한방병원 간호사의 한방간호 교육은 본 연구에서 제시한 6개의 영역과 총 45문항에 대한 프로그램을 기초자료로 이용하여 교육프로그램 구성시에나 지침서 개발 시에 반영한다면 효율적인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는 특정 지역이 아닌 전국 사도에 있는 15개의 의료기관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비교적 다양한 지역의 한방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시도되었다는 것이 강점이나, 전체 한방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아니므로 그 해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한방병원 간호사의 한방간호 교육요구도와 지식수준의 차이를 확인하고 하고자 시행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한방간호 교육요구도면에서 모든 영역의 교육이 필요하지만, 특히 침의 종류지식, 수기요법, 진단·치료지식 면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부분의 교육도 보완하여 지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한방병원 간호사들의 지식수준을 높이기 위해 교육환경의 여건과 체계를 마련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한방간호 교육에 대한 간호사의 요구도에 따른 단계별 한방간호 교육프로그램의 프로토콜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한방간호 지식수준을 측정하여 규명하고 전문적 한방간호 교육프로그램의 프로토콜을 개발하기 위한 반복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한방간호 교육 기관의 개설 및 실무 중심의 교육프로그램 콘텐츠 개발 및 교육 자료가 필요하다. 넷째, 한방간호 교육요구도가 높아지는 추세에 발맞추어 한방전문 간호인력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ORCID

Oh, Nam Kyung <https://orcid.org/0000-0002-0686-0744>
 Sim, Jeongeun <https://orcid.org/0000-0003-3155-5562>

REFERENCES

- Jung JA, Kim MJ. Development of oriental nursing job training program.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2020;14(3):31-45. <https://doi.org/10.12811/kshsm.2020.14.3.031>
- Kim MH, Jung MS. Job analysis of the nurses working on western oriental medicine cooperative hospital.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2017;8(4):963-82. <https://doi.org/10.22143/HSS21.8.4.49>
- Statistics Korea. Number of Patients by Type of Medical Institution [Internet]. Daejeon: Statistics Korea; 2019 [cited 2022 October 2]. Available from: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030_001&conn_path=I2
- Jeong YH, Jang MH, Yun EK, Jeong ES, Park JH. Job analysis of Korean medicine nurses sing the developing a curriculum (DACUM) process.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2017;23(1):63-74.
- Kim MJ, Kim MH, Jeong HS, Kim YS. Analysis of the job of nurses working on oriental medicine wards. *Journal of Korean Academy Nursing Administration*. 2015;21(4):341-53. <https://doi.org/10.11111/jkana.2015.21.4.341>
- Lee JA, Lee HK. Importance and usability analysis of the oriental nursing educational program.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1;17(3):379-86.
- Kim JH. Nursing practice and knowledge need for oriental nursing in nurses working a oriental medicine hospitals. [master's thesis]. Daejeon: Dong Shin University; 2003. p.1-68.
- Lee MH, Park HS, Ha JH. Adjusting process of nurses to an oriental medical unit. *Korean Journal of Adult Nuring*. 2017;29(6):615-25.
- Statistics Korea. Number of patients by type of medical institution [Internet]. Daejeon: Statistics Korea; 2019 [cited 2022 september 26]. Available from: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030_001&conn_path=I2
- Moon HJ, Shin HS, Yang KM. The study of curriculums on the nursing in oriental medicine.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2000;5(1): 114-9.
- Park HS, Shin S.H. The relationships of Korean medicine (KM) nursing knowledge, nursing practice and role conflict with retention intention in KM nurses.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2017;23(2):160-70.
- Korean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 Nurses. OHNA(Oriental Hospitals Nurses Association) Education [Internet]. Seoul: Korean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 Nurses; 2022 [cited 2022 October 2]. Available from: <http://ohna.or.kr/edu/program.php>
- Kim YJ. Role conflict and task performance of nurses in oriental medicine [master's thesis]. Kongju: Kong Ju National University; 2012. p.1-57.
- Lee SK, Park SN, Jung SH. Nursing core competencies needed in the fields of nursing practice for graduates in nurs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12;18(4):460-73.
- Hwang JI, Kim WO, Wang MJ. Nurse characteristics related to level of use of essential oriental nursing terms in oriental medicine hospital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11;17(2): 209-15.
- Back JY. Preliminary study for development of system for oriental nurse-specialist. *The Journal of Korean Ace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01;7(2):275-84.
- Wang MJ, Kim JH, Kim YH, Baek SN, Cha NH, Kim JA, et al. A study of educational situation, operation, and cognition of oriental nursing.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2004;10(1):126-35.
- Yoon WS, Park KH, Seo YS, Lee SY, Jung KH, Park JH. Development of the continuous education program on emergency nursing for military nursing officers. *Journal of Military Nursing Research*. 2007;25(2):1-31.
- Lee MM, Yoo JS, Chang SJ. A study on the in-service education needs according to critical care nurses' characteristics. *Journal of Korean Critical Care Nursing*. 2010;3(2):49-59.
- Kim JS, Kim KH, Kim MH, Kim HS. Nurse education needs related to knowledge and practice of gerontological nursing.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2010;12(2):177-89.
- Lee GY. Educational needs of Korean medicine nursing among Korean medicine nurses: Applying a mixed methods research [master's thesis]. Seoul: Kyung Hee University; 2021. p.1-77.
- Lee JH, Lee BS. Role adaptation process of elementary school health teachers: Establishing their own position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14;44(3):305-16. <https://doi.org/10.4040/jkan.2014.44.3.305>